



버려진 농촌의 의료 실태

보은 성모 병원

원장 정 루 까 수녀

우리 보은 성모의원이 천주님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펴고 지역사회의 질병 퇴치에 일역을 담당하고자 비영리 병원으로 개설된 것은 주후 1967년 2월 11일 이었습니다.

이제 만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여러분의 厚恩으로 수많은 환자의 痛苦를 덜어주고 천주님의 뜻을 펼쳐 조그만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환자 진료에 얹매여서 여러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linic의 실정과 그동안 보고 느낀 所懷의 一端을 여러분께 두서없이 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Clinic은 비록 규모는 적으나 환자의 영육을 구함에 있어 혁신적으로 일한 여러 직원들의 퍼나는 노력의 힘으로 이제 하루 평균 70~8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조촐한 병원으로 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료원과 병실을 확보하기가 힘든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개설 후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입원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충북 일원)에 청주, 미원, 청산 기타 고아, 맹아 진료등 한달에 각 2~3회씩 정기적 순회 진료를 행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입원환자를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면으로 더한 실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우리 Clinic의 의료요원은 의사 2명 간호원 1명 우리일을 직접 거들어주는 수녀 2명 검사실

기사 1명 간호보조원 7~8명으로 구성되어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부서로는 서무 약국 검사실 치료실 등을 갖고 있습니다.

1일 진료 환자수는 최고 120명 최하 60명 정도로서 1일 평균 80여명 정도이며 그 환자의 90%는 농촌의 빈한한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 큰 차이는 없으나 여자가 약간 많은 듯하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영유아 및 소아가 약 40%로 제일 많고 그다음 40대 30대 순으로 적어집니다.

환자들의 약 1/3 가량은 병이 난후 먼저 집에서 사약 한약방 한의사 양약방 및 무면허의를 거쳐 찾아오는 환자이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시골 환자가 대부분인 까닭으로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않될 듯하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1) 질병 진단의 필수요건인 病歷을 말하기 꺼려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털하기전에 진찰하고 마추어 보라는 식으로 대하는 환자가 많아 이런 환자에게 여러가지 설명으로 이해시키느라 힘이 들때가 비일비재합니다.

2) 많은 환자들이 약방 무면허의를 찾아 간단한 투약을 하고 병이 회복되지 않아 오히려 악화된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또 전례의 풍습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질병이 많아 우리처럼 농촌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고충을 더하여 줍니다. 그리고 농촌의 가족제도 또한 질병의 초기 발견 및 치료에 많은 지장이 됩니다. 아직도 家父長의인 대 가족제도

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웬만한 병은 집안 어른들의 허락없이 병원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3) 아직도 시골에서는 질병의 치료에 주술 및 미신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고치기 위한 무당들의 굿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 이 아닙니다.

4) 약물의 남용 및 誤用이 또한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약물 남용 및 오용이 심해 결국 불치의 병으로 이르게 한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의 Clinic를 찾는 환자들의 질환별 빈도를 보면 결핵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고 그 외 소화기 신경계 및 피부 질환등이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주로 소아에서 특히 많으며 겨울철이나 환절기 등 기후 변동기 등 환절기 등 기후 변동의 변화가 심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아 환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처럼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시골의 경우이긴 하지만 영양부족과 온돌이라는 재래식 난방법 및 병에 대한 인식부족 위생시설의 불비 경제사정의 궁핍등과 그 어머니들이 보건에 상식이 없어 환자가 도시보다 오히려 우월한 점도 들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clinic에서는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나 반복해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이는 밀을 만한 X-Ray clinic을 찾도록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은 X-선 흉부소견 및 세균 검사로 확인한 경우 도시인에 비하여 비교적 폐 결핵의 발견율이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때문에 농촌의 맑은 공기도 이런 질병의 발생율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X-선 흉부소견 및 임상증상이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케 하는 경우가 상당이 많은데 이는 아마 흉역 등 어릴 때 흔히 격여야하는 질환등을 전혀 치료하지 않는 옛부터의 습관으로 호흡기의 합병증을 앓게 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이외로 악성 종양(간암 위암 대장암)이 많으며 또한 위장 질환을 의심케 하는 主訴를 갖은 환

자중 X-선 투시 및 기타 검사로 확인한 경우의 반수 이상은 기능성 소화기 장애 및 신경성 환자로 생각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시골에서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는 도시인에 비하여 기능성 및 신경성 소화질환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질환에 대하여는 신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담」과 「에화」가 지은 막중한 죄의 값으로 나월을 잃어버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고충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문명사회는 이제 인간의 수명을 평균 70~80세까지 연장시켰으며 많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두해 전만해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질병이 간단한 투약으로 쉽게 정복되는가 하는 무서운 전염병을 피해 갈 수 있는 예방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터입니다. 인간의 나이 70이면 古來 稀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평균 연령이 70이 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사회를 지쳐 두고도 현대 의학의 혜택이 미흡한 가난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떤지요! 의학의 발달이 눈부신 현재에도 아직 그 본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현대의 학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힘이 아니라 조그마한 노력과 돈과 기술로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병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00~800여명의 젊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인구 10,000명에 의사 1명 일시기가 10여년 이내로 박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에 발행된 「한국의료연감」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의사 1인에 대한 인구수가 1157명으로 나타나 있고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 치료하는 의사의 수가 인구 700~800인에 의사 1인으로 의사수가 늘어났다고 하니 선진 외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음을니다.

이와 반대로 농촌의 실태를 보면 인구의 증가율에 반비례하여 의료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

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clinic이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의 경우를 들어 농촌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102,000명이며 의사 면허 소지자는 12명으로(8명은 限地醫師 正規大學出身 4명) 이중 보건소에 근무하는 2명의 의사(正規大學出身)는 산적한 보건행정의 업무로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할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환자를 대하여 진료에 임하는 의사는 限地醫 8명을 포함한 10명의 의사인데 고령으로 거의 진료를 쉬다 싶이 하는 의사가 2~3명이 되어 실제로 1명의 의사가 15,000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질병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미비하고 노후한 시설 및 장비로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의 병고를 덜어줄 良質의 진료는 불가능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행이 정부의 시책으로 무의촌에 수련의를 파견 하도록 되어 있어 기대를 걸어보나 장비 및 의료종사 및 의료종사원의 充員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숫자임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인 까닭으로 사회적인 지혜가 낮은 이유 때문에 또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그 생명이 천시될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회포크라데스의 선서」에 명시된 의술의 신성한 사명에 따라 양심이 명하는 데로 비참하게 벼려진 귀한 이런 생명들을 위하여 힘이 미치는데까지 우리 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clinic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서 없는 이야기를 막음할까 합니다.

우리 clinic은 보사부등 정부기관의 배려와 서독에 있는 동정 성모회 본부의 후원과 또 지역 사회 개발 원조단체의 보조등으로 지금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약 배가 되는 건물을 금년내로 신축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설치하지 못했던 X-Ray 機材를 설치하여 의료용원이 확보되는 대로 입원 환자를 받도록 더욱 모든 기구를 확장할 생각입니다.

또 지금 월 3~4회 실시하고 있는 순회 진료를 월 5~6회로 늘려서 더욱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여러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농촌의 보건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전염병퇴치에 앞장 서도록 하여 관내 거주 주민들의 기생충 구제 작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 드린 우리의 계획은 여기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믿으며 특히 큰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 지역에도 더욱 많이 베풀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도 순진 무후한 환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 실읍니다. 「어서 良質의 진료를 우리에게도 펴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거듭 혼신(魂身)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야 말로 천주님의 크신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고 지상의 평화를 향해 달리는 청경이라고 크게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